

대학 교육에서의 인성교육과 인문학

이배용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1. 대학의 역사

오늘날 대학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상황에서 대학의 기능과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원론적 질문들이 다시 대학 사회에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의 목표는 보편적 진리의 탐구에 있는가, 아니면 실용적 가치의 추구에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대학은 완전한 교양인을 양성하는 곳인가, 아니면 직업 전문인을 양성하는 곳인가, 또 대학의 중요 기능은 연구인가 교육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해 지금 서로 다른 의견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원을 한 번 살펴보는 것이 과거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미래를 비춰 본다는 의미에서 유익하고, 이를 통해 하나의 해결 방안과 예지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한국 전통 사회에서도 나름의 대학이 있었지만 요즘 대학들의 형태는 실제로 서양의 대학, 미국의 대학을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선 서양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12세기 말쯤에 대학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대학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University’ 개념은 아니었다. 당시 대학은 하나의 길드로서 교수 조합과 학생 조합이 합쳐진 교육 길드에 해당 되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왜 이러한 대학이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경제적인 발전

에 있었다. 도시와 상업의 발달은 인간의 끊임없는 지식의 탐구와 같은 욕구를 자극하게 된다. 즉 경제력이 향상됨으로써 사람들은 교육과 학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나 대학들의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중세시기에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끊임없는 진리의 탐구였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진리 탐구 기능에 기초하여 이 시기의 대학에서는 보편성과 자율성, 그리고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러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의 보편성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은 세계화, 국제화 등이 보편성을 갖지만, 당시의 보편성은 기독교였다. 근대로 가면 종교 개혁 때문에 분산이 되면서 국가주의가 되지만 그 시기에 유럽은 일맥상통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율성과 진리의 탐구에서는 파리대학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종교단체 등의 구속을 없애이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자유를 상당히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 중세의 파리대학 교수였던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연구라는 것, 진리 탐구라는 것에 하나의 기둥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당시에는 신에 대한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였지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인간과 신의 상호적인 진리의 교육 방법

은 고전을 외우는 것과 같은 습득식의 강의가 아니라, 토론의 방식이다.”, “상대적인 진리를 택하자.”와 같은 주장을 하여서,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아벨라르가 파리의 땅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렇게 규제를 하니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면 땅은 안 밟은 것이다.”라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땅과 나무에서도 아벨라르는 강의를 못한다고 명령을 내리자, 그는 세느강에서 배를 타고 강의를 하기에 이른다. 강 언덕에 파리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그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구름 떼같이 몰려들었다.

이러한 그의 이야기는 학문의 자유, 진리를 지켜 내오자 하였던 하나의 사례이다. 대체로 이러한 1단계 시기의 대학에서는 보편성, 자율성, 진리 탐구의 이념, 그러한 순수한 진리 탐구가 강조되었다. 그러다가 2단계인 16세기에서 19세기 전반까지 르네상스라든가 산업혁명과 과학혁명 등을 거치면서 오히려 대학은 침체기로 빠지게 된다. 그 이유는 일련의 변화들과 같은 모든 효율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 밖에서 이루어졌고, 대학이 절대 군주의 왕정 체제에서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을 받게 되면 학문의 자유는 축소되게 된다. 그러면서 산업혁명과 같은 조짐 속에서 대학 교육은 실용주의, 공리주의 위주로 가면서 이 시기에 대학의 연구력은 대폭 떨어지게 되고, 오로지 그야말로 교양인을 만드는 교육으로만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러나 교육도 중요하고, 사회봉사도 중요하지만 연구가 없으면 대학의 생산력, 대학의 지적 순환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인 16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를 대학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3단계로 가면 이전까지 대학이 지나치리만큼 실용주의적·공리주의적으로 빠진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 결국 다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부각이 되고, 이와 더불어 전인적인 교육 등을 강조하면서 대학은 상아탑의 영역을 철저히 쌓기 시작한다. 그 다음 4단계인 20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소위 ‘Multiversity’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풍

조가 대학 사회에 등장한다. 현대의 새로운 풍조인 ‘Multiversity’는 대학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산학연구와 같은 것들과 상당히 연결이 되는 것이다.

결국 대학의 이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그 강조점이 변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대학이 어느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어느 시대에는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진리 탐구’라고 생각한다. 즉 대학이 ‘진리의 탐구’라는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시대와 지나치리만큼 야합했을 때 대학의 그런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흥망성쇠를 이루는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제외하면 대학만큼 오랜 전통을 지켜 온 것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을 유지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대학은 유용한 직업적·전문적 훈련을 제공했지만 가장 높은 지적 탐구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 둘째로 대학은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시키기도 했지만 연구와 저술을 통해서 역사 발전을 추동하였다는 것, 셋째로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것으로 여러 교수법과 다양한 과목들을 하나의 조화로운 제도에 통합시키는 이상을 실현시키면서 인간 지식을 전체적으로 순환시키는 하나의 대표적인 교육 기관을 만들어 왔다는 점이다. 결국 자유로운 학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살리면서 그 사회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할 때 대학의 순수 학문적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국 대학의 전통에서는 국학, 태학, 국가감을 이어 조선 시대에 성균관이 일종의 최고 학부로서 대학의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서양의 제도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대체로 우리 전통의 교육, 최고 학부에서의 교육은 윤리·도덕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 인간다움과 같은 것이 가장 지배적이었고 또한 국가와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였다. 최고 학부에서 양성하는 인재들은 모두 관료

가 되기 위해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고 또 그 속에서 유교 경전과 같은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또 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관료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덕·윤리를 내세우면서 그 시대의 지표가 되는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통 유학교육은 첫째 교육방법에서 수신을 통해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추구한다. 둘째 교육내용면에서 문학·역사·철학·예악·정치·사회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균형 감각을 갖추어 인성과 지도력을 함양하도록 힘썼다. 셋째 유교교육의 지향점은 자기충실과 타인과의 조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의 지혜를 일깨워 주었다는 점이다.

이후 근대에 이르러 한국 사회는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해방 이후의 대학들이 서양의 대학을 모델로 하는 풍토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앞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국가와의 관계에서 서로 호혜적으로 설득하면서 갖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이상과 현실 속에서 대학 학문의 순수성과 실용성을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와 국가의 경쟁력 수준이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할 때, 결국은 대학이 균형 잡힌 판단을 통해 모든 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양적인 발전, 과학의 발달, 물질의 풍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의 교육은 정신적인 것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거기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명을 선도하면서 이끌어가는 진리 탐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기반에서 실용성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학이 산소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물결 같은 부드러운 힘으로서 인간다운 세상을 주도하고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인성교육과 인문학

“인성(人性)교육”이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인간의 인간됨 교육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의 생존을 견인해온 원리에 충실하면서 인류의 공생과 번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삶의 기술을 객관적 지식의 형태로 축적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몸을 대신하는 기계와 기술을 통해서 강력한 생존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 원리는 가치와 규범이라는 문화적 전략을 통해 인간적 삶의 양식을 재생산해왔다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은 따라서 지식의 전수와 가치와 규범의 전승으로 모아진다. 오늘날 인간이 소유하게 된 지식의 체계는 매우 정교해져서 우주를 탐사하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가까운 행성에 여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지식의 전수는 오늘날 다양한 학문체계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영역은 이 우주 내 인간 종의 생존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과학 기술의 발달은 이제껏 인간의 지식이 축적되고 활용되던 방식으로부터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세계에 관한 객관적 지식의 확보는 인성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우리의 믿음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지식에 바탕하지 않는다면 맹목적 이념추종이 지식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 안에서 강조되었던 지(知), 정(情), 의(義)에서도 이성적 앎이 인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간 삶에 있어서 정서적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현들의 고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정감적 능력은 인간에게 다른 인간과 자연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자연을 느끼고 그 감흥을 표현하며 타인과 그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 능력은 실상 이러한 정감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과 공감하고 역지

사지 할 수 있는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 또한 예술 경험과 인문학적 사유인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남의 고통을 보고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아이가 울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남이 웃으면 절로 입가에 웃음이 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태도이며 인간이 하나의 유적 존재로 지금껏 생존할 수 있었던 무의식적 전략이기도 했던 것이다.

인성교육의 지적 측면과 정적 측면 외에도 의적인 측면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의는 유교문화 안에서 매우 중시되었던 가치로서 행위의 올바름, 의로움(정의)과 관계가 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들 속에서 살아간다. 이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리나 규범의 질서, 가치를 만들어 내재화시켜온 것이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선택의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윤리 교육은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을 구성하지만, 윤리 교육만큼 어려운 일도 또한 없다. 이제껏 우리가 익숙한 윤리 교육은 “거짓말 하지 말라”와 같은 윤리적 강령을 직접적으로 교육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입식 윤리 교육은 윤리적 행위에 대한 상벌체계가 점차로 약화되어가는 최소 윤리사회에서는 빛을 발하기 어렵다.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최대 윤리의 사회라기보다는 최소 윤리에 바탕을 둔 합리적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 인간 교육은 직접적 강령의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하도록 가치판단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윤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택의 결과와 행위의 책임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우는 일은 다양한 인간 삶의 상황들을 섭렵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 다양한 선택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문학이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풍부한 인간 삶의 모습과 선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철학은 윤리적 가치와 원리, 인

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해준다. 인성 교육에서 지, 정, 의의 측면을 고루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문학은 매우 소중한 교육의 보고가 된다.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인간은 배움에 대한 근본적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인간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중요한 특질은 내면성과 자기성찰성이다. 인문학의 많은 저술들은 이러한 인간 내면성과 깊이 연관되어있으며 이러한 내면성의 함양이 배양시키는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사유 능력의 함양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냥 앉아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생각의 여러 갈래 길들을 만들어놓았다. 이러 저러한 갈래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면 우리는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더 많은 생각의 길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2) 분석 능력의 함양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소중히 가꿀 수 있는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 가지의 생각의 갈래 길을 걸었던 사람은 그에 비추어 사물과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눈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력과 비판적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비판은 무조건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정밀한 사물의 객관적 분석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합리적 사고가 정립될 수 있다.

3) 상상력의 함양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태도이다. 역지사지의 능력은 인간관계 기술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의식적 반성을 가능하게 한다. 역지사지의 능력은 상상력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상상력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예술적 능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소통 능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배움 능력의 함양

논어는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그 아니 즐겁지 아니 한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배움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스스로 묻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문명을 지금껏 견인해온 힘인 것이다. 이 근원적 호기

심과 배우고자 하는 동기는 자기 자신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근원적 내면성의 표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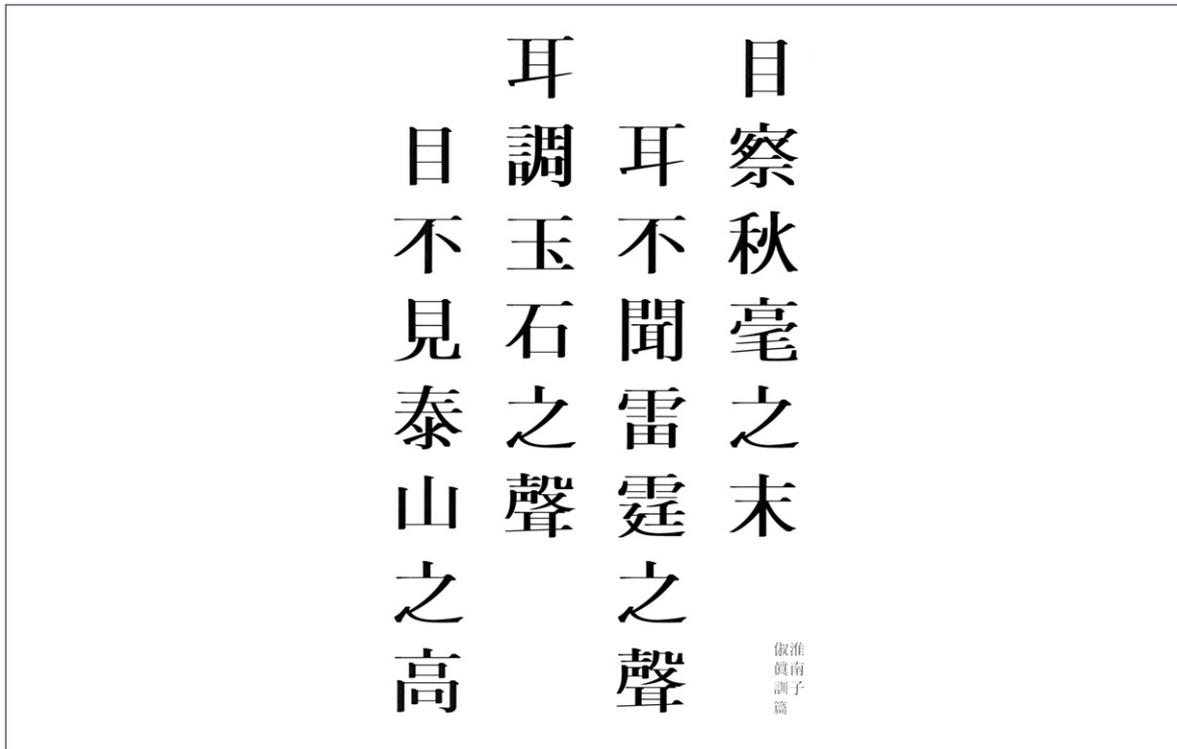
5)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인문학적 사유는 단순히 자기 속에 침잠하여 묵상하는 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다양한 인간 삶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시시각각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을 높일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인간 삶의 우연성에 대처할 수 있는 예지력을 키워줄 것이다.

3. 고전(古典)을 통해 본 인성교육의 사례

(참고자료 첨부)

[참고자료 1] 회남자



화왕계(花王戒)

설 총[薛聰, 생몰연대 미상, 신문왕대]

신문대왕(신라 31대 왕, 재위: 681년-692년)이 한여름 5월에 높고 밝은 방에서 설총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오늘 장마가 처음 개이고 향기로운 남풍이 약간 서늘하니, 비록 맛 좋은 음식과 듣기 좋은 음악이 있다 해도 고아한 이야기와 유쾌한 해학으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은 못하리라. 그대는 반드시 색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터이니 어디 한번 나를 위해 말해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설총은 “알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가 들은 것은 옛날에 화왕이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니 봄철이 되자 예쁘게 피어나 온갖 꽃을 뛰어넘어 홀로 빼어났습니다. 그러자 가깝고 먼데서 곱디곱디 아름다운 꽃의 정령들이 바빠 달려와 화왕을 알현하고자 하여 오로지 다른 이에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이때 홀연히 붉은 얼굴과 옥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미인 하나가 간들간들 오더니 얌전한 자태로 다가 서서 말하기를 ‘저는 눈처럼 흰 물가의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마주하며, 봄비에 목욕하여 때를 씻어내고, 맑은 바람을 쏘이면서 스스로 노닐거니와 이름은 장미라 합니다. 대왕의 밝은 덕망을 들었는지라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잠자리를 받들고자 하오니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실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장부 하나가 배움에 가죽 띠를 매고 백발에다 지팡이를 짚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와서 말하기를 ‘저는 서울 바깥 큰길가에 자리 잡아, 아래로는 넓고 먼 아득한 광야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 빛에 의지해 살거니와 이름은 백두옹이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비록 좌우에서 받들어 올리는 것들이 넉넉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며 의복이 장롱 속에 쟁여 있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좋은 약으로는 원기를 북돋우고 독한 침으로는 병독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실과 마로 짠 베가 있다 해도 거적이나 띠풀 같은 물건을 버리지 않나니, 무릇 모든 군자들은 인제가 부족할 때 대신 쓰이지 못할 이 없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께서도 역시 이러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이가 ‘두 사람이 왔으니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버릴 것입니까’ 라고 묻자, 화왕은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지만 미인은 얻기 어려운 것이니 이일을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부가 나와 말하기를 ‘저는 왕께서 총명하여 이치를 알리라고 생각해서 왔던 것인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닙니다. 무릇 임금된 사람치고 간사하고 아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정직한 사람을 멀리 하지 않는 이가 드무나니, 이 때문에 맹가가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풍당은 낭서 따위로 썩어 흰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러했거늘 전들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화왕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왕이 서글픈 얼굴빛을 지어 말하기를, “그대의 우화에 실로 깊은 뜻이 있도다. 글로 써서 왕 된 이들의 경계로 삼아야겠다” 하고는, 마침내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 수록

차마설(借馬說)

가정 이 곡 [稼亭 李 穀, 1298~1351]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말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도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을 아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百乘)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견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가정집(稼亭集) 수록

재물을 오래 간직하는 법

다산 정약옹[茶山 丁若鏞, 1762~1836]

세상의 옷과 음식의 재료나 재화, 재물은 모두 부질없는 것들이다. 옷은 입으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기 마련이며, 재물은 자손에게 전해주어도 끝내는 탕진되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가난한 친척이나 가난한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이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큰 부자인 의돈의 창고에 보관 되었던 재물은 흔적이 없으나, 한나라 때 소부가 받은 황금이야기는 아직도 전해내려 오고 있다. 소부의 이름은 소광인데 태자의 스승을 지냈으며 나중에 황제로부터 받은 황금 수십 근을 모두 주변 어려운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진나라 때 큰 부자인 석승의 별장이 있던 금곡의 그 많던 비단은 한갓 티끌로 변했으나, 송나라 때 재상 범중엄이 친구를 돕기 위해 보리를 실어 나르던 배 이야기가 여전히 칭송을 받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형제가 있는 것은 파괴되기 쉽지만 형제가 없는 것은 없애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기가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형체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제 재물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물질적인 향락을 누리면 닳아 없어지고 파괴되는 수밖에 없지만 형체 없는 정신적인 향락을 누린다면 변하거나 없어지는 낭패를 당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는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다.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불에 타 버릴 걱정도 없고, 소나 말이 운반해야 할 수고로움도 없이 자기가 죽은 뒤까지 지니고 가서 천년토록 아름다운 명성을 전할 수 있느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느냐? 재물은 단단히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끄럽게 빠져 나가는 것이니 재물이야말로 미꾸라지 같은 것이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수록

참 · 고 · 문 · 헌

- 김영한, 「서양의 대학」, 『한국사시민강좌 18』, 일조각, 1996.

필 · 자 · 소 · 개

이배웅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문학석사, 서강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위원, 제17대 대통령당선인 정책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공저),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공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공저), 『한국사회사상사』(공저) 및 『한국 근대 광업침탈사 연구』 등이 있다.